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20

국경없는교육가회

2020년 연간보고서

EWB
Educators Without Borders

2020 국경없는교육가회 연간보고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20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20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601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21년
발행인 김기석
편집인 이차권, 김은아, 차영준, 한소연

© 2020 Educators Without Borders
All rights reserved.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07 년 한국에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를 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개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입니다.

교육전문성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구합니다. 2007년 창립 이래로 부르키나파소에서 시행해온 문해교육, 기술교육, 소액대출로 이루어진 GAPA 사업모델로 2014년 한국 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상하여 전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립추구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지구촌 이웃들에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주고자 합니다.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전 세계의 비문해 성인들에게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협력과 지원에 앞장섭니다.

목 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 6

II. 사업보고 ····· 7

1. 부르키나파소 나눔과 꿈 MARCA 사업 ····· 7

2. 부르키나파소 COVID19 긴급지원사업 ····· 15

3. 부르키나파소 꿈장학재단 도서관 사업 ····· 25

III. EWB 소식 ····· 30

1. 케냐 국가학력평가(NAEP) 도입 타당성 조사 ····· 30

2. 부르키나파소 비타민 전달 ····· 36

3. 제 3 세계 문구류 전달 ····· 38

4. 직원 업무협의회 개최 ····· 39

5. 중동 평화교육 웹세미나 발표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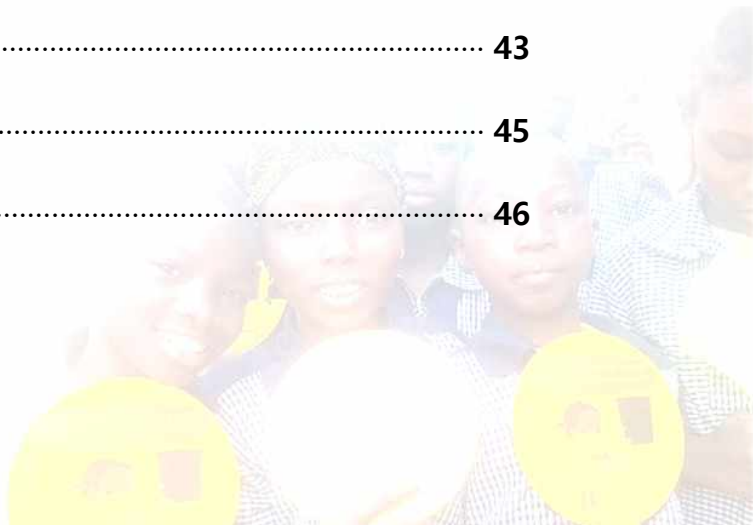
6. 국경없는 교육가회 직원 해외파견 ····· 41

7. 기타 소식 ····· 42

IV. 2020 년 세입/ 세출 결산보고 ····· 43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 45

VI. 2020 년 후원자 명단 ····· 46



Ⅰ. 연간보고서 발간사

2020 년 인사말

2020년은 코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입니다. 다들 나 하나 살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었지만,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 누군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확진자를 치료하고 누군가는 소외된 이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국경없는 교육가회도 '사람이 중심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머나먼 타국 땅에 청년교육가 2명이 파견되고 현지 파트너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이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도 반드시 빛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13년간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매년 1~2명씩 아프리카 오지로 젊은이들을 파견해 왔습니다. 말라리아 걸려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정신을 구현한 청년 교육가입니다. 또 이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에 가득 찬 많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업에 이 3박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협력하였기에, 예상치 않았던 성과를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의 발견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청년교육가, 글로벌 교육전문가 그리고 현지인 이들 3박자가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더 좋은 세상 만들기는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빛도 없이 공로도 없이 자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1. 부르키나파소 나눔과 꿈 MARCA 사업

가. 협력사: 삼성 나눔과꿈

나. 사업명: 부파 농가의 양계소득증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양계협동조합 사업

다. 파견지역: 보보 / 레오 / 부쎄 지역

삼성 나눔과 꿈 재단을 통해 경제적 빈곤 퇴치와 교육 및 자립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적정기술과 정보기술격차 해소 지원을 목표로 2차년도 부르키나파소 농가의 소득증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양계협동조합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17년 추진 사업 참여한 47가구 참여자 및 2019년 신규 모집된 13가구 참여자 총 60개 가구 (617명)으로 구성된 참여자는 성인 비형식 문해교육을 수료한 여성들과 주요 수입원이 없거나 불안정한 수준에 있는 수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020년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MARCA 농민들의 생산은 이번 상반기에 특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의 노력과 수혜자들의 극복 의지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하였다.

라. 활동 내용

(1) 양계교육

2020년 5월 11일~16일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역량평가 연수(DBVAC)가 실시되었다. 3월에 예정된 연수였으나 COVID-19 팬데믹으로 잠정 보류되었다가 지방 간 이동 금지령이 해지된 후 5월에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삶의 경로를 통한 각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젝트의 목적과 개인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 개발계획과 행동계획 구성, 연간 활동 계획 세우기, 계획 실행 후 평가 방법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며 빈곤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 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0년 5월 18일~20일에는 신규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양계적정기술교육으로 경영교육이 실시되었다. 현지 경영강사를 섭외하여 신규조합원들의 공동 양계경영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수익분배, 회계서류 작성법까지 다루면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0년 7월 7일~9일 현지 양계기술강사 심화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토종계 부화와 육추사양 관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양질의 유정란 자체 생산기술에 대하여 자체 생산된 유정란 보관법, 자체 생산된 유정란으로 부화율 올리기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었다.

(2) 각 지역 결산협의회

☗ 보보 지역

보보 지역은 시장 봉쇄로 인해 닭 판매량 감소와 병아리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아리 확보가 어렵게 되어 인공 부화기에 120개의 달걀을 넣었지만, 그중에 35개만 병아리로 부화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 (부화기의 고장 혹은 유정란 분량)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계장의 주요 사료인 옥수수 가격과 수의 제품도 함께 상승하며 수혜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가중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보보 지역 양계협동조합은 2020년 9월 29일에 정식 협동조합으로 지역 승인을 받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회비로 1인당 500 FCFA의 분담금을 각출했고, 현재 협동조합 현금계좌 잔고는 19,000 FCFA로 확인되었다. 대출 상환의 경우, 6명의 수혜자가 대출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계협동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공부화기 사용 교육, 좋은 수정란 구별 관련 기술교육, 빗물수집 처리 교육과 COVID 19 질병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결산협의회를 마치며 모든 수혜자들은 EWB로부터 쌀 한 포대, 세면대, 마스크, 비누 한 상자, 닭 2마리를 기부받았다.

보보 결산협의회는 양계협동조합 대표인 SANON Marie Nelie 씨의 발표로 2020년 11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주요 안건은 COVID 19로 인한 2020년 국경폐쇄에서 파생된 봉쇄령 사태와 이동금지, 시장 봉쇄 등 해당 지역이 직면한 문제점들과 양계활동 타격 내용이 주를 이뤘다.
추가로, 우수 사양가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양호한 성과를 거둔 3개 양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GAPA 사업을 걸쳐 배운 문해교육과 연계하여 양계 거래장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소득 및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가계부 활용도 역시 높았으며, 일부 수혜자는 한 해 동안 양계 수익금의 일부로 계사를 확장하였다.

☗ 레오 지역

레오 결산협의회는 ADJED 회장 Namoro Mikailou 씨의 발표로 2020년 11월 13일에 실시되었다. ADJED는 아이들과 빈곤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는 기관으로 고아를 양육하는 5개 가족에 분유를 기부하고 있었으나 최근 COVID 19로 활동을 중단하였다.

레오 지역 양계협동조합은 지역 유지의 지원으로 8월 중에 승인을 득하였으며 정기 회의와 특별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닭의 질병과 치료 방법, 차단 방역, 유정란과 인공부화기 관리 등 양계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수혜자들은 한 해 동안 병아리 1010마리를 주문하였고, 254마리의 병아리와 뿔닭을 인공부화기에서 수혜자들이 직접 부화시키기도 했다. ADJED는 정원의 관계 및 식수 활용을 위한 빗물 수집 시스템 설치를 위해 재정 지원을

받았고, 수혜자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사료 생산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발표가 끝난 후, 수혜자들에게 건의사항을 물어보자 레오 지역 2020년 우수 사양가 1등 수상자인 NIGAN Salamata씨는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동조합에서 질병 교육을 담당한 수의사의 도움으로 사육 시스템과 개선된 사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닭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양계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 부쎄 지역

부쎄 지역 결산협의회는 양계협동조합 대표인 BAMOGO Emilienne 씨의 발표로 2020년 11월 16일에 실시되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COVID 19 봉쇄령에 따라 2020년은 힘든 해였는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양계활동을 각자 2회기씩 밖에 전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올 한해 확보한 병아리 총 개체 수는 2850마리였고, 어렵게 키운 닭의 판매 시점에서 판가가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1200 FCFA~2250 FCFA 범위에서 가변적) 수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작은 닭 개체, 양계 사료 생산, 인공부화기 관리, 개체 사망률 등 다른 어려움들도 겪고 있다.

부쎄 지역 양계협동조합은 Bousse 시장, 수의사 KABA Denis 씨 및 AFP 책임자들의 도움으로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통신비, 연료비 등 소액의 비용을 지출하며 협동조합 현금 계좌를 충당하기 위해 1인당 100 FCFA 회비를 걷고 있다.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양계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WB에 수혜자 숫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결산협의회 직후에 SADWIDI Zanmannaaba 씨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특히 현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수혜자들에게 양계 활동에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모니터링 및 정기회의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수의사 및 마을관리자, 참여 가정 모니터링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양계협동조합간의 월간 정기회의도 진행되었으며, 사업 중간에 진행되는 관리자 평가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회장은 2020년 1월 29일 발행된 SIRAYIRI의 Kankanentigui 단일 양계협동조합(la Société Coopérative Simplifiée Avicole) 신청 확인서를 기쁘게 발표하였다.

(4) 우수참여자 선발 및 현장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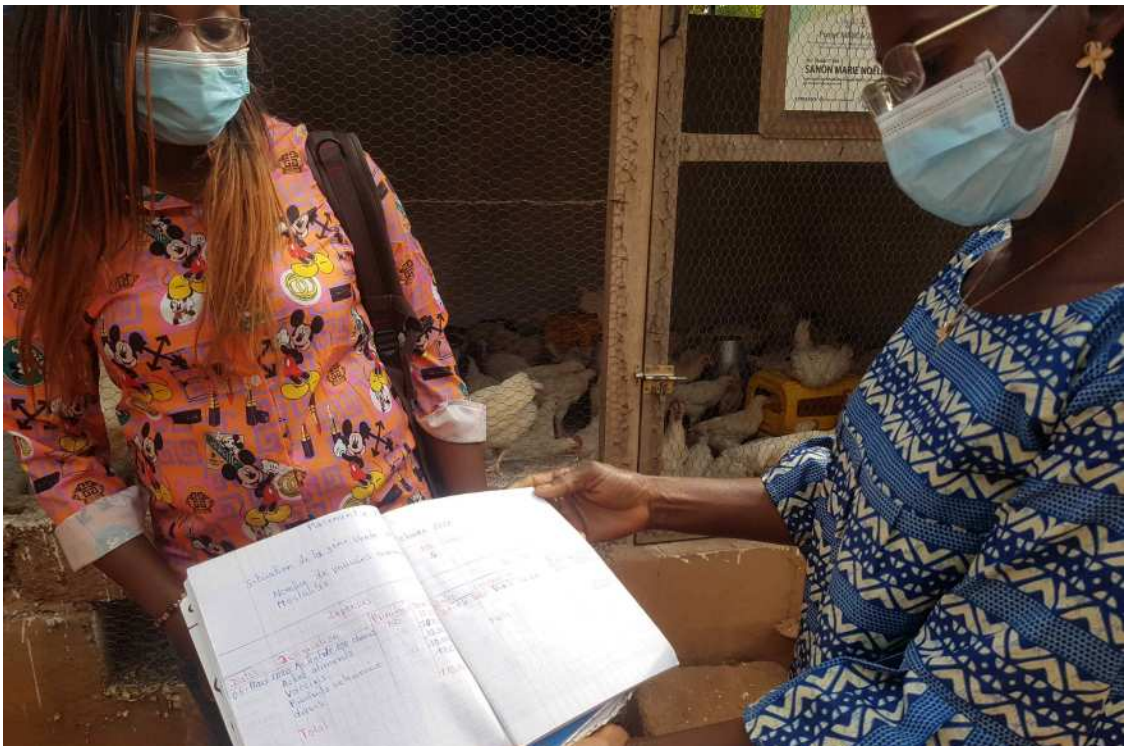
10월과 11월 사이에는 우수참여자 선발대회와 현장견학이 진행되었다. 각 마을 수의사(양계기술강사)가 계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각 수혜자별로 점수를 내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2명 선발하였고. 점수 기준은 회기 수, 병아리 기른 수, 폐사율, 판매율, 수익 등으로 평가하였다. 선발된 우수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작년에 한국의 사료 제조 기술을 전수한 유동휘 박사가 보내온 복합사료를 함께 증정하였다.

[2020년 우수 양계 사양가]

지 역	등 수	이 름	내 역
보보	1등	SANGARE	· 양계 3회기 중, 신규 교육한 백신 규정 준수 중 · 방문 당시 양계장에는 건강하게 성장 중인 3개월 된 Bleu Hollande(외래종 육계)가 있었음
보보	2등	SANOU Noelie	· 양계 2회기 중, 신규 교육한 백신 규정 준수 중 · 방문 당시 양계장에는 75일 된 성장 중인 Isa Brown (외래종 육계) 닭이 있었음 · 깨끗하고 평평한 짚 더미, 발 씻는 통, 육계와 호로새를 함께 같이 키우고 있었음
레오	1등	NIGAN Salamata	· 양계 1회기 중, 모두 닭으로 다 성장되어 곧 판매직전 상태
레오	2등	TIANAMA Samakéni	· 양계 1회기 중
부쎄	1등	ZONGO Marcelline	· 양계 3회기 중, 판매 3회 완료, 1건 추가 양계 판매 진행 중
부쎄	2등	OUEDRAOGO Rasmata	· 양계 3회기 중, 판매 2회 완료

수상식 이후에 참가자들은 수상자의 양계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수상자들의 모범 양계장을 방문하여 양계장 운영 관련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양계장	우수양계장에서 현장 견학 내용
SANOU Noelie	· 75일된 한창 성장 중인 Isa Brown 수탉 · 청결한 위생 상태 (백신 프로토콜 준수, 깨끗하고 평평한 짚더미, 발 씻는 통) · 뿔닭과 중닭 개체의 조화롭고 양호한 적응 상태 · 우수 양계 생산 관리 수첩 소개 ('17~)
SANGARE Sarata	· 3개월된 건강하게 성장 중인 bleu Hollande 개체들 · 청결한 위생 상태 (백신 프로토콜 준수, 깨끗하고 평평한 짚더미, 발 씻는 통) · 우수 양계 생산 관리 수첩 소개 ('17~)



(5) 주요 성공 사례

자체적으로 계사를 확장하는 양계인

2차 연도는 갑작스러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 및 양계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별 양계인들은 국경 폐쇄로 인하여 주로 수입품인 병아리, 사료, 백신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록 양계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 또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올해 3월 초부터 국경이 폐쇄될 뿐만 아니라 지방간 이동금지, 야간 통행금지, 시장, 식당 등의 영업을 금지하였으며 결혼식, 종교행사 등의 모든 행사를 금지하였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닭을 평상시에 즐겨먹는 상황보다는 명절이나 행사 등 특별한 날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금지된 시점에서는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하반기 때는 COVID-19 팬데믹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모든 방면에서 경제적으로 악화되었기에 소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이러한 악화 속에서도 부쎄 지역의 한 양계인인 마담 라즈마타와 그의 가족들은 꾸준히 양계활동을 진행하여 100수 계사를 확장하여 한 번에 250수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100수 계사로 시작한 양계인들이 병아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100수 계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양계활동 수익금을 모아서 계사를 자체적으로 확장하였다. 마담 라즈마타 뿐만 아니라 세니라는 젊은 청년 또한 계사를 확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관리자 평가간담회 및 협동조합별 결산협의회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은행이나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그동안 양계활동으로 모은 돈으로 계사 확장을 하고 있었다. 현재 지붕을 아직 못 올렸는데 차후 양계활동 소득으로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매 회의 때마다 100수 계사로는 양계수익을 많이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사 확장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 두 명의 수혜자는 자체적으로 직접 계사 확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수혜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양계활동기록부’를 작성하여 타 양계인들에게 모범이 된 양계인

양계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다행히 MARCA사업(양계사업)에 동참하기 전에 문해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수혜자들이기에 비록 공용어인 불어는 불가능하더라도 지방어는 쓰기와 읽기가 가능한 사람들로 모집을 하였다.

이번 핵심 사양가 선발대회 시 보보 지역에서 2등으로 뽑힌 마담 Sanon Marie Noelie계사에 방문하였을 때 직접 작성한 ‘양계활동기록부’를 보게 되었는데 날짜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공책은 다른 지역의 수혜자 및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성방법 대해서 양계기술강사(수의사)가 아주 우수한 점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비록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인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양계활동과 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우수 사양가 선발대회 당선자들

우수 사양가 현장 방문

전체1위 우수 사양가 사라타 여사

자신의 양계일지를 자랑하는 모습

양계판매 수익금으로 계사를 확장한 모습

보보지역 결산 협의회 진행 사진

2. 부르키나파소 COVID-19 긴급지원사업

가. 협력사: KOICA

나. 사업명: Post-Covid-19 부르키나파소 호흡기 질병방역과 예방교육

다. 기간: 2020. 8. ~ 2020. 12.

라. 금액: 3억 7백만원 (KOICA 98%, EWB 2%)

마. 활동 내용

부 지역에 대한 COVID19 긴급지원사업은 EWB 주도로 2020년 8월부터 개시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질병예방에 대한 의식화 활동과 구호물품 기증을 통한 지역 방역에 대한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쎄·보보·레오 지역에서 구호 식량 및 방역물품 배부, 질병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약 3500여 명(여성 비율 최소 60%)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전체 금액 규모는 KOICA와 EWB 두 개 기관이 함께 자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식량 및 방역물품 배부

마을 주민과 마을 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대상으로 구호식량과 방역/캠페인 물품을 제공하였다. 우선, 마을 주민 60가구에는 긴급식량 쌀 60포대 및 닭 120마리의 구호 식량이 주어졌다. 방역물품으로는 간이 세면대 85개와 손비누 10,080개가 주어졌는데, 간이 세면대들은 총 마을 주민 60가구에 한 대씩 배부되었으며, 초등학교 4곳과 유치원 1곳에 21대가, 각 마을 센터에 1대씩 4대가 배부되었다. 손비누는 AFP의 Saaba 여성 비누 생산자들로부터 손비누 14,000 개 제작하였으며, 마을 주민 60가구가 20개씩 총 1200개가 배부되었고 수혜자는 총 617명이었다. 이 밖에도 손비누는 각 마을 센터에 60개씩 총 240개가 배부되었고, 초등학교 4곳 및 유치원 1곳에는 8620개가 배부되면서 2,211명이 수혜를 입었다.

<구호식량>

쌀

닭

또 다른 방역물품인 천 마스크는 현지 Yennega 실업 고등학교에서 제작하여 구매하였고, 18,736개가 제공되었다. 마을 주민 60가구에 20개씩 1200개가 배부되면서 수혜자는 총 617명이었고, 각 마을센터에도 20개씩 총 80개가 배부되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는 17,456개가 배부되었으며 수혜자는 총 2,211명이었다. 천 마스크는 원계획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혜자에게 배부되었으며, 잔여 손비누 및 천마스크는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추가 배부되었다.

<방역물품>

세면대

손비누

천마스크

마지막으로, 티셔츠, 손부채, 브로셔로 이루어진 캠페인 물품 1500개가 제공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3곳과 유치원 1곳, 각 마을 주민 60가구에 배부되었다. 캠페인 물품들은 계획대로 배부되었으나 추가로 티셔츠 500 , 손부채 500개, 브로셔 400권을 주문하여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추가 배부되었다.

(2) COVID19 질병예방 교육

COVID-19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 현지 주강사(TRAORE Daouda)를 중심으로 28명의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수료한 28명의 지도자들 대상으로 수료증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각 지역별 마을에서도 질병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질병예방 교육은 총 4개 마을센터에서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진행되었고, 총 3개의 지방어로 번역된 교재가 배부되었다. 또한, 10월~11월 중에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 계획에 없었던 2개 질병예방 교육 활동이 자체적으로 추가 진행되었다. 먼저, 레오 지역에서는 마을 관리자가 10월에 진행된 강사대상 질병예방 교육을 받은 후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체 질병교육을 실사하였다. 다음, 보보 지역에서는 유치원생 100명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협찬 받은 COVID-19 예방 교육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기도 하였다.

질방예병교육을 수료한 강사 모습

부쎄지역 발랑고 마을에서의 교육 모습

레오 지역 어린이들의 질방예방교육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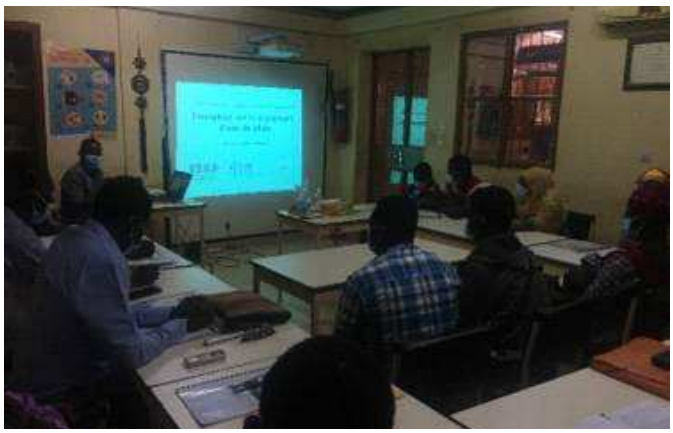
보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 들이
질병예방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

(3) 빗물시스템 장치 설치 교육

빗물장치 지도자 양성 교육이 ICC(일가가나안센터) 내 다목적홀 건물과 APENF-BF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2명의 수료자들은 빗물시스템 장치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 받았으며, 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들을 통해 각 지역별 마을에서도 개별 체온 확인 및 방역 지침 하에 빗물교육이 진행하였다. 총 4곳의 마을센터에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 당 이틀 동안 빗물장치 설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동안 총 3개의 지방어로 번역된 교재가 배부되었다. 빗물시스템교육이 진행된 지역별 센터에서는 빗물장치가 설치되었고, 마을 별로 지붕 및 배수관과 물탱크의 종류는 다르지만, 센터 환경에 알맞은 형태로 설치되었다. 또한, 빗물시스템 교육용 다목적 건물(ICC, 일가가나안센터)이 완성되었고, 현관 설치 및 페인트칠이 완료되었다.

빗물시스템 장치 수용을 위한 ICC(일가가나안센터)내 다목적홀 건물 모습



빗물시스템 장치 교육을 듣고 있는 수강생 모습.

부쎄 지역의 볼로고 마을센터에서 진행되는 빗물교육 모습

마을 센터 빗물 장치 설치 완료 모습

(4) 의료진 방역 물품 배부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하여 기술지원파트너인 아프리카 비형식 교육 증진회(APENF)를 통해 Yalgado Ouedraogo(얄가도 우에드하오고) 대학부속 병원장 Constant Dahourou(꽁스땅 다우후)씨에게 방역 물품과 보호 장비를 전달하였다.

이번에 전달한 외과용 가운 200개, 마스크 300개, 눈 보호대 300개, 장갑 300개로 구성된 기증물품은 KOICA와 EWB가 협업하는 'COVID19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규모는 약 5백만 FCFA, 한화로는 약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번 기증식은 현지에서도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기사화 되었다. 담당 병원장의 깊은 감사의 말이 전해졌다.

방역물품 수여 기증식
현지직원, APENF 회계부장, 얄갸도 GD

기증서 수여

APENF 회계부장
인터뷰모습

얄갸도병원에 기증된 방역물품

현지 기사

(5) 의료진 웹세미나

(사)국경없는 교육가회(대표 김기석)와 (사)라파엘인터내셔널(이사장 안규리)은 지난 12월 19일(토) 오후 7시(한국시간) 한국과 부르키나파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한국과 부르키나파소 양국 간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한 첫 웨비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아비장 대학교 한국어과의 황희영 교수,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국립공중보건연구소 산하 감염병 전담기관인 CORUS(Centre des Opérations de Réponse aux Urgences Sanitaires) 의료진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한국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CORUS 의료진

세미나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엄중식 교수의 모습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이차권

2020년 시작과 끝을 장식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는 처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부로 사상 세 번째 Pandemic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2020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에 '2020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개도국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공모가 게시되었다. 우리 기관은 코로나19 심각성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서아프리카 최빈국 부르키나파소였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그 나라에 닥쳐올 쓰나미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 **'위기는 기회다'** 이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되어보자. 공모 제안서 사업명을 **'Post-Covid-19 호흡기 질병방역과 예방교육'** 정하고, 지혜를 모아 Think Tank Team을 Full 가동하였다. 그 결과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8월 19일 (사)국경없는교육가회, 라파엘인터내셔널, 비형식교육증진회(APENF) 컨소시엄을 맺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다.

부르키나파소 코로나19 방역 및 구호물품 지원, 손씻기 물 확보를 위한 빗물장치 설치, 취약계층 및 마을 주민 대상 질병예방 교육 실시, 지역의료 및 주민인식 현황 조사, 의료진 보호물품 지원 및 웨비나 개최 등 이행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사업 진행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현지 파견 및 초빙 연수가 불가능하였다. 현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메일 또는 실시간 화상통화, 교육영상 제작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주요 사업 실적들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지만, 누군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방역을 하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사람들을 도와야 했다. 이 몫의 일원으로 뛰고 있던 어느 날, 최전선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고생을 자청해서 하나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은 손해 보는 삶이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그래서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에 감사하다. 긴급지원 사업 기간을 뒤돌아보니 4개월 10일,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관은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 기관 비형식교육증진회(APENF)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프리카 속담에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도 묶는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부르키나파소 코로나19 대응전략 수립과 역량강화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제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원조 없이 스스로 대처할 자력능력 기반 조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 되어버린 현실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이 있다면, **'지구촌 어느 한곳에서 일어난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끝났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구촌 한 가족이다. 소망이 있다면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세상'**을 꿈꿔본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세상이다.

3. 부르키나파소 꿈장학재단 도서관 사업

가. 협력사: 삼성 꿈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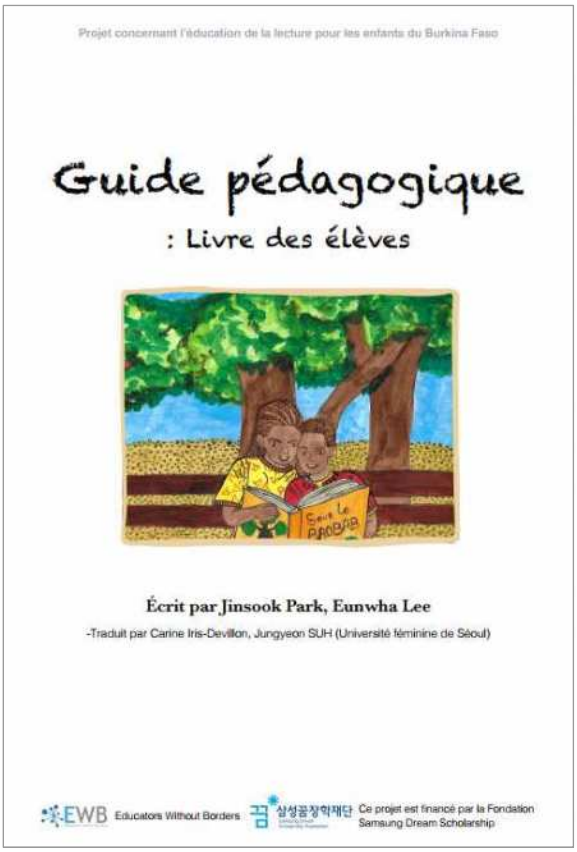
나. 사업명: 부르키나파소 아동을 위한 도서관설치 및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

다. 기간: 2020. 9. ~ 2021. 8.

라. 활동 내용

국경없는교육가회는 삼성꿈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부르키나파소 아동을 위한 도서관설치 및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교육목표로 POST-COVID-19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동영상 독서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고, 부르키나파소 현지에 적합한 독서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그림책으로 놀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체험시키고자 하였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



Allez, jetez des déchets dans la poubelle. (par Song jun)

국내에서는 박진숙, 서정연 교수, 이은화, 뮈리엘 은돌로를 중심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교재까지 제작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 불어학과에서 불어번역을 도와주었다.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있어 다양한 문화와 주제의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아동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여 독서활동으로 인한 언어 표현력,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만든 창작물로 인한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서 교육과 동시에 책을 읽고 미술과 공예를 활용한 연관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표현 매체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설명 : 그림책으로 놀자	
교육목표 : 다양한 주제로 책을 깊이 탐구하면서 책이라는 매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함.	
관련 동화	**교육내용**
- 이수지, <검은 새> - 레오 리오니,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파랑이와 노랑이> - 몰리 뱅, <소피가 화나면-정말 정말 화나면...>	○나, 너, 우리: 나, 자존감, 성장, 감정, 공감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읽고, 각각의 책에서 표현한 기법으로 단어와 문장을 뽑아 단어집/문장집을 만듦
- 알랭 시셰,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 쟈끄 골드스틴 <별> - 마샤 브라운, <돌멩이 수프> - 소피 퓌로, <얘들아, 안녕> - 하세가와 요시후미,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최양숙, <내 이름이 담긴 병>	○지역, 평화
- 프레데릭 바크, <위대한 강> - 이와시키 치히로, <눈 오는 날의 생일> - 몰리 뱅, <우리 모두의 지구 물과 숲과 공기> - 알렝 니엘 퐁포피당, <나무의 비밀>	○자연: 강, 숲, 눈 등 자연의 요소를 주제로 한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도 같이 다룸. 드로잉이나 판화 기법을 활용한 연관 활동 진행.
- <나는 기다입니다...J'attends...> - <적 L'ennemi> -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선을 주웠어요 La grande histoire d'un petit trait) .	○프랑스 작가 세르주 블로크 집중 탐구: 40년 넘게 활동 중인 프랑스의 거장 일러스트레이터, 간단한 선으로 심오한 내용을 표현.
백희나(아동문학의 노벨상인 '린드그렌상' 수상) - <알사탕>, <구름빵> - 연관활동: 종이로 콜라주해서 책 만들기 ---------- 권정생(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동화작가) - <강아지똥>, <빼떼기>, <오소리네 꽃밭> - 연관활동: 수묵화로 책의 한 장면 그리기	○한국 동화 맛보기

- <새는 새는 나무자고> - <도깨비 방망이> - 연관 활동: 북바인딩 기법을 익혀,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책을 손제본	○ 한국의 전래동요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눔. 엄마나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녹음) 텍스트로 옮김.
	- 책을 읽고 미술과 공예를 활용한 연관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표현매체 연결하는 능력을 키움. - 주어진 주제로 책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임.

(2) 도서 구입 및 독서 프로그램 준비

현지와 국외에서는 도서관을 채울 지방어 동화책과 프랑스 책들을 구입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교수와 동문들이 아동용 불어책과 DVD를 모아 기증하였다.

현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과 강사들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가 가나안센터 ICC 주변 3곳의 학교에 방문했으며, 현직 선생님들과 리더(교장,교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제작된 교육강의들을 현지로 전달하여 현지의 독서교육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성된 강사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0명의 학생들과 15명씩 2그룹으로 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 케냐 국가학력평가(NAEP) 도입 타당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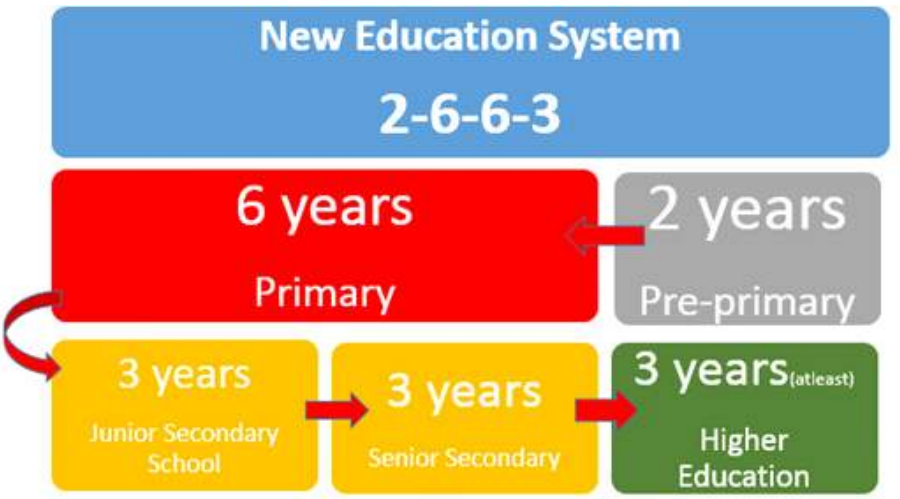
(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케냐 국가학력평가(NAEP) 도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진으로는 김기석, 강태중, 고선윤, 김성식, 박상영, 전성하가 참여하였다. 2020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김기석 대표, 고선윤 이사, 전성하 집행위원은 케냐로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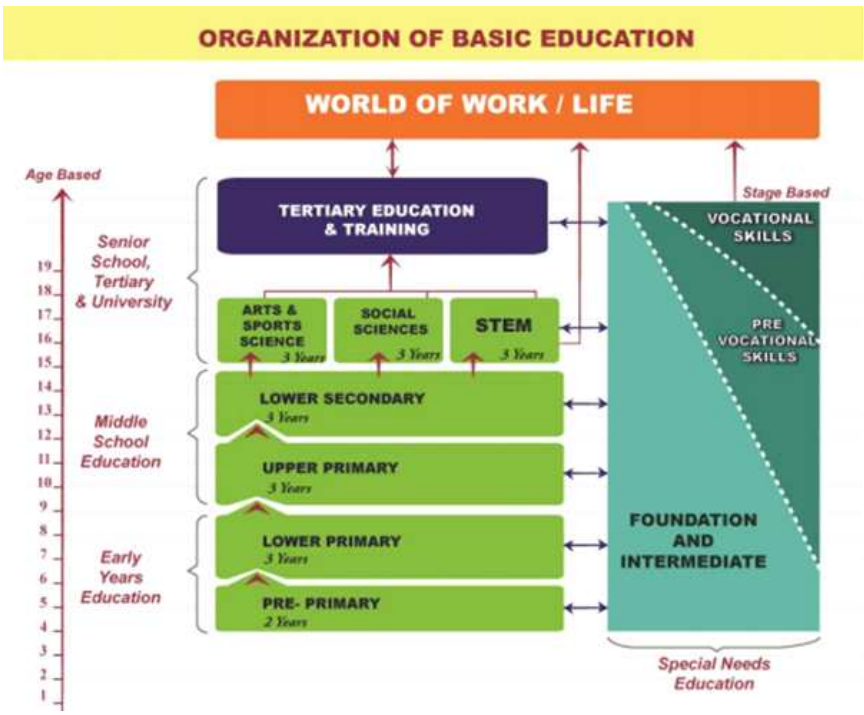
FAWE 방문, 컨설팅 사진

가. 케냐 학교 교육 현황

케냐의 학제는 1986년에 도입한 8-4-4제를 2017년까지 시행하였다. 8년의 초등 교육, 4년의 중등 교육 및 4년의 대학 교육으로 나뉜다. 고등교육은 보통 4년 과정이다. 케냐 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초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이 부실하여 과밀 학급과 교원 전문성 부족은 문제로 남았다. 2003년 무상초등교육(UPE)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케냐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002년 93%에서 2007년 107.7% 수준으로 증가하여 100%를 달성하였다. 교원 양성과 임용, 학급당 학생 수 등과 같은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초등 8학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스와힐리, 영어, 수학, 과학, 농업, 사회과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게 케냐 초등이수증을 (the Kenya Certificate of Primary Education, KCPE)을 수여한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케냐의 학제는 8-4-4제에서 2-6-6-3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2-6-6-3 교육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8-4-4 시스템이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특히 취업 환경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케냐의 고용주들은 어업, 건설 및 농업 부문을 소홀히 했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이트 칼라 직업 연수생의 유입이 케냐 직업 시장에서 기술 불균형을 일으켜 케냐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케냐의 2-6-6-3 교육 시스템의 도전과제는 8-4-4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기존 문제의 연속성에 있다. 애초에 2-6-6-3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8-4-4 시스템의 향상이 아니라 8-4-4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현재 케냐의 교육은, 2018년 정식으로 도입한 케냐의 2-6-6-3 교육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국가 정부, 카운티 정부 및 일반 대중, 기타 교육 이해 관계자)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할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이상적으로는 구현하는 데 연간 3,400억 Ksh의 비용이 예상되며, 새로운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최소 20억 Ksh를 할당해야 한다. 교사 노조는 2-6-6-3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때 예상되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기존의 인적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90,000명 이상의 교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2-6-6-3 시스템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소외된 지역은 학교 자체가 부족하며 케냐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케냐 정부가 이러한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이상과 목표가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다. 이후 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 향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남녀, 도시와 농촌 등 배경 지위 별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목표 달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질 관리에 필요하다. 또한 지표상 질 향상의 촉진 또는 저해 요인을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학력평가 시스템인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와 같은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70년대 행동과학연구소의 선도적 사례처럼 학생 성취도와 함께 맥락 변인을, 자료를 수집하여 학업성취 수준에 미치는 교사나 학교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학력 향상의 촉진 또는 저해 요인을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평가 모형 중 전국학력평가연구 모형이 적절하다.

개별 국민이나 가구 수준에서도 우수한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없는 양질의 교육을 학교 밖에서 구하고 있다. 이른바 방과후 학교, 주말 개별 과외 등에서 찾고 있다. 초등졸업시험 합격을 위해 재수도 한다.

그러나 교육열에 비해 교육의 질은 부족하다. 최근 월드뱅크는 "케냐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3년 가까이 학습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교육의 질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케냐인들은 중등 교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및 20세의 40 % 이상이 기본 문해력 수준보다 낮았고, 이로 인해 케냐의 교육 시스템을 거친 아이들은 잠재력의 52% 밖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이것은 교육의 질의 문제라고 하였다.(https://www.nation.co.ke/lifestyle/World-Bank-warns-of-crisis-in-Kenya-education-system/1190-5322820-format-xhtml-dhyats/index.html)

나. 케냐 학교교육 효과를 연구한 국제 비교연구에서 확인된 쟁점과 과제

- 학교장학 프로그램 효과가 없어 질 관리가 열악하다.
- 교원은 교장이나 장학사 등 정부 상급자로부터, 학생들이 졸업자격시험에 좋은 성적 내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교사부족이나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이 만연한 학급 현실에서 압력은 비현실적 목표라고 인식한다. .
- HIV/AID 탓에 고아나 위기의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있다. 학부모 문맹자가 상당 수 있다. 이들은 교육의 가치를 잘 모르고 부모의 책임을 다할 책임의식이 없다.
- 학교교육에 대한 무력감이 학생 사이에 널리 퍼져 "학교 다녀 무엇 하나?"는 부정적 생각이 주류이다. 좋은 교육을 받아도 밖에 나가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을 체득하고 있다.
- 초등 무상교육이 시행됨에도 등교를 저해해서 장기 결석 현상은 농촌지역에서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그 결과 학습과 교육의 질이 낮다.
- 중도 탈락은 초등 저학년에서 많이 나타나며 유급도 상당한 정도이다. 여학생은 가사 돕기와 심지어 조혼 습관 탓에 학교를 중퇴하기도 한다.
- 과밀 학급이 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교구(칠판, 교과서 등)나 학습 보충 자료가 부족하다. 가구 급식 상태가 열악하여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크게 떨어진다.
- 중앙 정부의 교육비 제공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의 미래는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향점의 설정은 케냐의 교육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하다. 각 분야별 지표 구축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과 현지 맞춤형 평가 툴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평가 툴을 이용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표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 파견단 구성 및 협력 기관

케냐 교사 역량 강화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지 방문	
파견단	김기석 국경없는교육가회 대표 고선윤 국경없는교육가회 이사, 전성하 국경없는교육가회 집행위원
현지 협력자	박상영 국경없는교육가회 케냐 지부장
	Dr. Kilemi Mwiria 케냐 전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
	Dr. Sarah Chairwomen TVT Meru 이사장
	Martha Executive Manager FAWE, Executive Director
	Dr. Jacqueline Onyangu NICD 부원장, 원장 직무대행
	Dr. Romanus Odiambo 메루과기대 총장
	Dr. Ibuathu Njati 메루대학교 교육학과 학과장
	주 케냐 한국대사관 대사
	KOICA 케냐 사무소, 소장

KOICA 케냐 사무소 업무 회의

NICD 부대표와의 만남

메루대학교 방문

2. 부르키나파소 비타민 전달

국경없는교육가회는 2020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고려은단 조회장님의 지원으로 20kg 비타민을 부르키나파소에 직접 전달했다. 부르키나파소의 여러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했고, 미팅을 통해 그동안 어려움과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전달된 비타민은 각 학교 기관의 아이들에게 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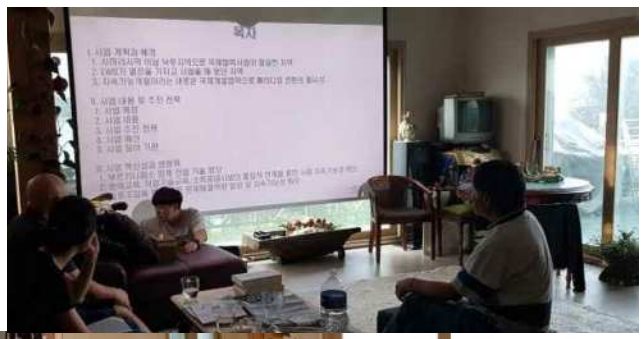
교육 관계자에게 비타민 전달 모습

3. 제 3 세계 문구류 전달

2020년 6월 4일, (사)한국평생교육사 협회에서 교육물품 5박스를 후원하였다. 볼펜, 사인펜, 텀블러, USB 등 다양한 교육 물품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물품은 부르키나파소에 전달하였다.

4. 직원 업무협의회 개최

2020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동에서 직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김효겸 양계 전문가와의 미팅을 위하여 남해를 방문하였다. 현지 부르키나파소 양계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떠한 효율적인 양계시설을 건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중동 평화교육 웹세미나 발표

2020년 9월 24일, 국경없는교육가회 김기석 대표는 모로코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평화교육 웹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김기석 대표는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한 참석자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연자로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출연하며,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아프리카 사할 지역 교육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기석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교육개발과 FGM,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실시간으로 아랍어로 동시통역되어 생중계되었다. 대표는 이 행사를 발판으로 국경없는교육가회가 화교권 나라 진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6. 국경없는 교육가회 직원 해외파견

2020년 9월 15일 국경없는교육가회 소속 국제협력부 김은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부르키나파소로 파견되었다. 김은아 PM은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국경없는 교육가회 소속 국제협력사업부 차영준 팀장이 부르키나파소로 파견되었다. 차영준 팀장은 양계 현장 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자 평가회의에 참석하면서 현지 상황들을 조사하고 파악하였다.

7. 기타 소식

가. 김기석 대표 영어논문 책자 기증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의 영어논문 책자를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기증교환실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여러 곳에 기증하였다.

나. 국경없는 교육가회 신입직원 채용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청년재단 지원을 통해 2020 년 하반기 인턴을 모집하였다. 총 82 명의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을 꿈을 품고 지원하였다. 그중 12 명의 면접자가 선발되었고, 최종 1 명 한소연 간사가 채용되었다.

다. 제안서 공모 지원: 미선정 사업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KOREA FOUNDATION: 2020 년 3 월, 부파 재생에너지 교육사업, 2000 만원
- STOP-FGM: 2020 년 8 월, 케냐 여성할례 금지사업, 1 억
- KOICA 입찰: 2020 년 12 월, 교육 및 다분야 성과관리용역사업, 5 억

Ⅳ. 2020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1. 2020 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20 년 수입	2020 년 지출	당기수익
591,744,023	483,729,562	108,014,461

2. 2020 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6,987,277	
후원수입	정기후원금		34,337,820	
	부정기후원금		34,470,000	
	소계		68,807,820	
사업수입	사업수입	코로나사업	301,087,500	
		나눔과 꿈	74,289,617	
		청년인턴	12,000,000	
		도서관사업	22,800,000	
	소계		410,177,117	
기타수입	법인운영비		5,646,939	
	이자수입		124,870	
	소계		5,771,809	
합계			591,744,023	

3. 2020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코로나사업	304,300,919	
		나눔과 꿈	74,725,525	
		청년인턴	8,806,900	
		도서관사업	8,691,746	
		케냐사업	11,780,000	
	소계		408,305,090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47,034,390	
		사무국운영비	26,681,887	
		세금	368,280	4대 보험 비용 제외
		기타잡비	1,339,915	
	소계		75,424,472	
합계			483,729,562	

Ⅴ.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68104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2020 년 후원자 명단

(만민교육 1,000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0원 이상)

- **Honor Club**
  윤희진(다비육종), 이현(우리교육 연구소)

- **만민교육 후원자**
  노임환(엠디그린)

- **빈곤퇴치 후원자**
  김기석, 이차권, 영도교회, 정성하, 이성실, 이병훈, 손영우, 김진환(학지사)
  (사)대한어머니회, 김지선

- **문맹퇴치**
  전희경, 박용희, 이강현, 박길성, 이현정(용인), 이지현, 김주훈, 김찬란, 박환보
  현영, 안종실, 박용천, 장한결, 안욱진, 이재찬, 김성열, 김한울, 송은미
  최인수, 박준범, 이선우, 조난숙, 김성희, 정대홍, 박진숙, 노정혜, 김성식
  정진화, 조정아, 문삼은, 정미란, 이상국, 공유찬, 양병표, ㈜올더베스트
  정인숙, 변현정, 변성범, 박에스더, 서정연, 현지숙, 정유정, 안욱진, 강은성
  남궁재환, 이은정, 김동하, 정해철, 김지자, 여영기, 양은성, 양길석, 신선미
  류방란, 남영선, 이윤복, 이한별, 이향규, 이정숙, 이관수, 김준엽, 김명진
  김현숙, 조상식, 전종갑, 정복희, 허병부, 최채기, 배전현, 안상길, 정운찬
  이정아, 고형은, 최규민, 주현일, 유동휘, 김태석, 차영준, 최덕환, 민선영
  남장희, 김충실, 강완수, 홍순원, 권기, 이호준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WB
Educators Without Borders